

瀟灑園 木版本과 金麟厚의 瀟灑園四十八詠 詩文分析을 통한 別墅 瀟灑園의 景觀特性에 관한 研究

金 炫* · 金 龍 基**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Retreating Villa Sosewon Garden through a Woodcut of Sosewon Garden and the analysis of the Kim, In Hu's 48 Poems

Kim, Hyun*, Kim, Yong-Ki**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ung kyun kwan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clarify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Sosewon Garden through interpreting the Kim, In Hu's 48 poems(in Chinese characters) which clearly represented the landscape image of the users about this garden by selecting the cultural position of how then the users of the garden interpreted and manipulated its landscape rather than the scientific position. The followings were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and review of the woodcut and the 48 poems through names and scenic element.

1. When analyzing the names, those names due to the human experience were the most. This revealed that sensitive perception and experience was emphasized in the garden life.

2. It was important that can be experienced as nature and human beings come in contact each other at stream.

3. The landscape of the Sosewon Garden emphasized not only the elements of the form and their combination but also on the unusual experience of human behavior and climatic element. The elements of the form which was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poet was regarded as the cultural one of this garden and had an ideological background to convey the meaning of the landscape.

4. The Sosewon Garden was divided into four characteristic spaces as it is considered in terms of the sense of place represented in the 48 poems; the approach space, the space for poetic recital, the ideal space, and the space of pleasure.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別墅는 自然을 배경으로 한 詩賦吟詠의 場所로서 自然과 合一할 수 있는 自然象을 借景하여 생활과 연결시킨 독특한 場을 형성함¹⁾으로서 예술적 가치와 조경사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別墅중 瀟灑園은 作庭者 梁山甫 一家의 別墅로 경제, 육아, 가사잡무 등 일상생활은 堂邑촌에 있는 本家에서 처리하고 사색, 휴양, 독서 등 園主의 개인적 文化生活과 방문객과의 교류, 후학의 훈도 등 社會生活이 이곳에서 영위되었다²⁾.

瀟灑園圖에도 나타나 있듯이 瀟灑園은 생활기반이었던 堂邑촌과 지척인 곳에 위치하는 삶의 장소이며, 사상적 학문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학과 학문의 장소이며, 풍류와 위락의 공간으로 제공되어져 당대의 문인들이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으로 이어지는 누정가단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곳은 경치면에서나 의미면에서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정원생활은 우수한 審美眼을 가진 文人들에 의해 詩吟行爲가 거듭되어 독창적, 주관적인 美가 발견되어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원의 아름다움과 견해가 발굴되어져 정원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瀟灑園과 같은 古庭園은 대상 그것 뿐만이 아니라 관찰자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와 감정까지를 포함한 심리적 현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瀟灑園에 관한 연구는 作庭者의 행장과 실측을 통한 空間原形研究 및 物理環境의 解析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시의 庭園文化的 측면에서 作庭者와 내방객이 瀟灑園의 景觀을 바라보았을 視覺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作庭者가 瀟灑園에 意味를 부여하는 방식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瀟灑園圖에 기록된 名稱을 분석하고, 내방객들의 景觀에 관한 심상과 사고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瀟灑園48詠詩를 분석·고찰하여 이를 공간상에 투영시켜 봄으로써 당시 瀟灑園의 이용

자가 지각하는 景觀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의 範圍

본 연구는 瀟灑園의 景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瀟灑園圖에 나타나는 名稱과 瀟灑園48詠詩의 內容을 분석하고 그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현지 답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瀟灑園圖에 나타나는 명칭중 형태, 위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나 사물의 명칭과 河西 金麟厚(1510-1560)의 瀟灑園48詠詩를 대상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답장에 둘러싸여 경계가 명확히 보이는 4,600m² 규모의 內園, 즉 瀟灑園圖에 나타난 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瀟灑園에 관한 시문에는 여러가지가 나타나 있으나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으로 瀟灑園48詠詩를 택한 이유는 이 詩의 作者 金麟厚(1510-1560)가 梁山甫의 인생과 학문 뿐만 아니라 瀟灑園의 조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 절친한 벗이자 사돈(次男子澄(1523-1594)의 丈人)으로서 그가 瀟灑園 48詠詩를 지은 시기는 瀟灑園의 조영이 거의 끝날 무렵인 1548년(명종3년)으로 그 造營象이 極에 달해 있을 때이며, 園域내의 主要한 景觀要素와 庭園生活 등 瀟灑園의 이모저모를 때에 따라 說明하고 있어 당시 瀟灑園 景觀에 대한 이용자들의 觀察과 理解 態度를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根據가 되기 때문이다.

II. 研究의 方法

庭園의 名稱을 분석해 보는 일은 정원을 통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가치관, 자연관, 景觀에 대해 사람들이 意味를 부여하는 방식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詩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事物을 보는 방법, 느낌, 사고를 변화시키고 事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보다 깊은 景觀體驗을 경험시켜 주는 것⁴⁾이라 볼 수 있으므로 詩文에는 정원 이용자들의 園遊生活과 더불어 景觀에 관한 심상과 사고의 특성이 반

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瀟灑園에 나타나는 명칭과 시문의 내용을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질을 이해·분석하고 그것의 공간배치적 양상을 확인함에 의해서 作庭者가 瀟灑園의 庭園生活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을 파악할 수 있겠다.

1. 名稱에 關한 分析

어떤 장소나 대상에 名稱을 附與한다는 것은 어떤 手段으로 그 特色을 파악하여 解析을 행한 것으로 그 의미에서 名稱 附與는 對象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레벨의 創造的 行爲라 하겠다. 事物과 名稱과의 關係라는 점에서 보면 ‘事物의 位置 關係’, ‘事物 特有의 性質’, ‘事物自體의 意味作用’을 중시한 無機的 關係로 나누어진다.⁹⁾

以上の 分類는 Peirce의 記號分類로 指標(index), 類像(icon), 象徵(symbol)에 각각 해당하는 것⁹⁾으로 이에 따라 瀟灑園에서 나타나는 名稱을 分類·類型化하여 分析해보면 瀟灑園에서의 庭園要素의 意味를 類推해낼 수 있다.

2. 景觀의 構成要素에 關한 分析

景觀을 景觀要素의 集合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분류(渡邊,1985)를 생각해 볼 수 있다. 渡邊(1985)는 景觀要素 분류에 있어서 景觀要素를 形體要素, 意味要素, 風土要素로 나누었다. 이 중 形體要素는 建築·土木·自然을, 意味要素는 行事·產業·故事를, 風土要素에는 氣候·時刻·季節을 포함하고 있다.⁶⁾

그런데 본 연구의 범위는 瀟灑園48詠詩에 限해 있어, 詩 內容중에 意味要素인 行事·產業·故事에 관한 것이 실려있지 않고 그대신 人間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意味體驗이 풍부히 실려있어 본 연구에서는 행사·산업·고사 대신 인간의 행위를 意味要素로 채택하여 瀟灑園의 景觀要素를 분석하는 틀로 정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瀟灑園에 나타나는 名稱

瀟灑園의 景觀特性으로 瀟灑園과 같은 작은 규모의 정원에서 여러 事物과 空間에 命名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瀟灑園圖에 나타나는 名稱과 48詠詩의 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各項目別로 具體的인 手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表 1 참조>

<表 1> 瀟灑園圖에 나타난 名稱과 그 手法別 分類

區分	名稱附與의手法	實 例	計	比率
事物의 位置關係	包含	散池 蓴芽 梅臺 桃塢	6	16%
	並列	柳汀 夾路 脩篁 塊石		
事物特有의 性質	五感에 의한 體驗의 示唆 및 強調	小亭 鼇巖 小塘 透竹危橋 廣石 千竿 臥松 叢筠 垣竅 透流 五曲門 脩階散步 愛陽壇 杏陰 玉湫橫琴 暮鳥	28	74%
	生活 體驗의 示唆	榻岩 床岩 鼓岩精舍 槽潭 水瀑 蘭石假山 略昨 芭蕉 冬柏 桐 金河西長垣48詠手題		
名稱의 意味作用	引 用	光風閣 霽月堂 負暄堂	4	10%
	象 徵	待鳳臺		
總			38	100%

(表 1)과 같이 瀟灑園에서 나타나는 名稱을 分類·類型化하여 보았을 때 瀟灑園에서 나타나는 名稱에서는 체험적 사실이 전체의 74%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視覺的 體驗 뿐만이 아니라 五感 전체로서 느끼는 체험과 더불어, 사람들이 庭園生活에서 體驗하는 것을 名稱에 나타내고 있는 것은 景觀을 體驗하는 主體에 풍부한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使用된 分類法은 絶對的 分類가 아닌 程度에 따른 것으로 하나의 名稱안에 그 特徵이 混在할 수 있다. 그 예로 「桃塢」가 단순히 복사꽃이 만발한 동산이라는 단순한 사물의 위치 관계만이 아니라 梁山甫가 평소에 陶淵明(365-427)을 사모하여 歸去來辭와 五柳先生傳을 文房左右에 놓고 읽었다는 瀟灑園事實의 내용으로 보아 武陵桃源을 상징한⁷⁾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48詠詩中 「桃塢春曉」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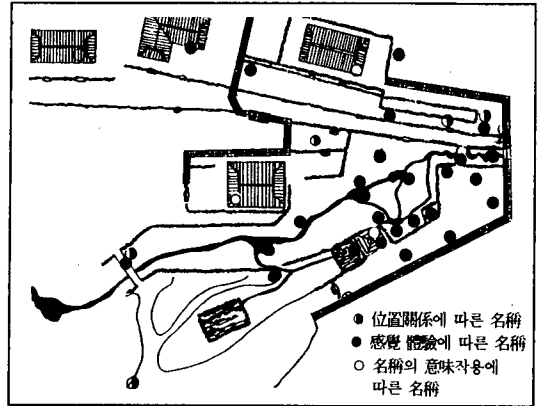
또한 「愛陽壇」, 「鼈巖」, 「石假山」이 겨울철에도 각기 양지바른 곳, 자라모양의 露頭巖, 돌을 쌓아 만든 산이라는 『사물의 체험적 성질』에 따른 점도 있으나 「愛陽壇」은 陽氣를 보위한다는 상징적 기능을 가지며, 「鼈巖」은 자라가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不老長生の 靈物⁸⁾임에 기인하고, 「石假山」은 神仙界를 상징하여 그 命名이 이루어졌다 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名稱의 空間的 解析을 하기 위해 名稱에 관한 유형 분류 결과를 도면상에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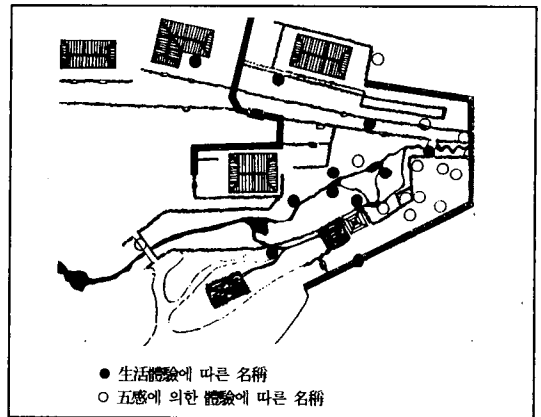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치관계에 따라 命名되어진 공간이나 사물은 瀟灑園내의 全地域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場所에서 얻어지는 感覺 體驗으로 命名이 이루어지는 것들 대부분이 溪流를 中心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庭園生活에서의 體驗으로 命名이 이루어진 「榻岩」, 「床岩」, 「수대」, 「槽潭」, 「略昨」, 「石假山」, 「瀑」은 外部體驗을 示唆하는 名稱들보다 溪流와 近接하여 分布되어 있어 溪流空間을 中心으로 自然과 人間이 서로 접하면서 經驗하게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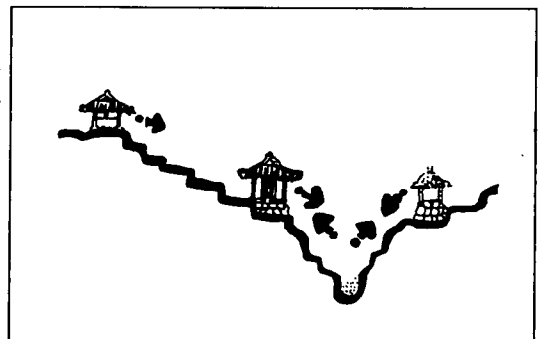
景觀의 體驗이 중요시되었으며 소쇄원이 가진 가장 중심이 되는 경관자원이 이 계류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1> 瀟灑園에 나타나는 名稱의 分布圖



<그림 2> 體驗에 따른 名稱의 分布圖



<그림 3> 溪流地域 借景의 概念圖

이것은 梁山甫가 이곳에 瀟灑園을 造營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곳에 원래 있었던 溪流에 있었던 만큼 이 溪流를 중심으로 自然 岩斜面에 累石 築臺하여 건물부지, 뜰, 화계, 통로 등을 구성하였다는 瀟灑園事實의 內容과 園域안에서 건물이나 여러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溪流를 中心으로 俯景과 仰景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 瀟灑園의 借景構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참조)

2 瀟灑園의 景觀

1) 瀟灑園의 景觀要素

瀟灑園48詠詩에 나타난 景觀要素를 形體要素, 意味要素, 風土要素로 나누어 살펴본 結果는 <表 2>와 같다.

<表 2> 景觀要素의 分類

區分	景觀要素의 分類		小計	計	比率
形體要素	建築・土木	瀟灑亭 水(2) 危橋 夾路脩篁 閣 田 透竹危橋 塘池 (3) 陽壇 平原 梅臺 桐臺 方塘 逕 斷橋 壇(2) 園桃 塢 枕溪文房 小塘 垣竅透流 假山 詹 茅詹 泉(2) 脩階散步 牆(2) 長垣(2) 木通流 臺(3) 階(2) 籬	43	187	75%
	自然	地形地貌 巖 危巖 廣石 榻岩 床岩 槐石 絕崖 青山 水壑(6) 隔澗 槽潭 激湍 五曲流 透流 展流 石逕崖(5) 溪邊(2) 巖崖 柳汀 石跌 巖洞 潭 谷 山湫流 玉湫 前流 片岩 石岸 石(11) 池 臺 巖壑溪(2) 丘 片石 石過邊 武陵溪 溪傍澗(3) 野瀑(2) 汀邊 溪傍 將石 曲流 橋邊	72		
	生物	植物: 竹(5) 梅(2) 杏(2) 松(3) 槐 梧桐 竹林 丹楓 四季花 梔 菊 蘭 蓮 蓴 千竿 老幹 芭蕉 紫薇 菖蒲 叢筠 叢林 叢竹 柳 桃(2) 蘇(2) 樹(3) 林(6) 草(2) 花卉 花(2) 卉 渠 竹根 筍 動物: 鳶魚(3) 鳥(2) 山禽 馬 鱗 鐘子 蟻 鳳 鴨(2) 禽 暮鳥 鷄聲 鷗	72		
意味要素	人間의 行爲	小亭憑欄 石逕攀危 池臺納涼 梅臺激月 廣石臥月 榻巖精坐 玉湫橫琴 湫流傳盃 床岩對棋 脩階散步 倚睡 槐石 槽潭放浴 柳汀客迎	13	13	5%
風土要素	氣候	雨(3) 露雪(3) 霧霜(3) 風(6) 月(2) 陽雲(2)	22	51	20%
	時刻	日夕 寒夜 黃昏 曉霧 薄暮 雲暗 午橋 冬午 深夜 晝 眼 昨夜	11		
	季節	炎熱 納涼 炎 放浴 春入 夏陰 丹楓 秋來 寒夜 鋪雪 雪霜 冬午 歲晚 南風 雪幹 映水 帶雪	18		
總				251	100%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瀟灑園48詠詩에 나타나는 景觀특징들은 그 要素가 다양하게 표현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形體要素는 총187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瀟灑園 안에 있는 주요한 建物, 構造物, 空間, 地物, 植生, 動物이 묘사되고 있다.

形體要素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自然」은 원래 자연발생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인간이 조절하지 않은 「野生景觀」의 要素를 말하나 詩吟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진 「自然要素」는 瀟灑園의 文化要素로 간주되어 景觀의 意味가 전달되도록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靈月堂, 光風閣, 梅, 松, 蓮에서는 周茂淑의 儒學的 분위기 가 감돌고 있으며 桃塢, 菊, 柳에서는 陶淵明적인 安貧樂道 思想이 엿보이며, 待鳳臺下에 竹과 梧를 식재한 것은 太平聖代의 到來를 기원하는 뜻이며 石假山, 紫薇, 桃塢, 梅臺는 武陵桃源을 나타내며 龍巖은 神仙思想과 관련이 있다.^{9),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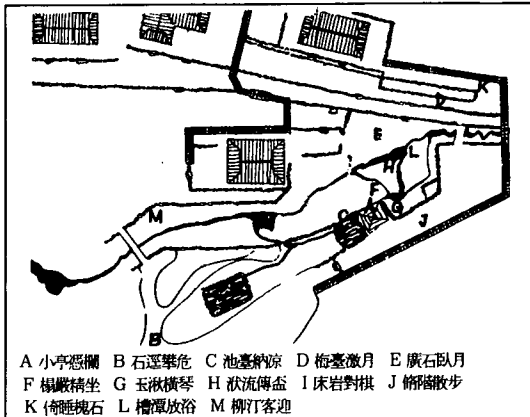
이와 같이 瀟灑園의 形體要素는 作庭者의 思想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形體要素中 가장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계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앞의 명칭분석 결과 感覺과 體驗에 따라 命名되어진 명칭들 대부분이 계류를 중심으로 나타난 점과 함께 園域內에서 계류가 중심적 景觀 體驗 공간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 볼 점은 瀟灑園의 形體要素중에서도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외견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의 행위가 동반되거나 風土要素로 인해 景觀이 미묘한 변동을 보일 때 보다 인상깊은 景觀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중 사람들의 행위가 동반되어 景觀의 인식이 증폭되는 시제는 다음과 같다.

「小亭憑欄」, 「石逕攀危」, 「池臺納涼」, 「梅臺激月」, 「廣石臥月」, 「榻巖精坐」, 「玉湫橫琴」, 「沆流傳盃」, 「床岩對棋」, 「脩階散步」, 「倚睡槐石」, 「槽潭放浴」, 「柳汀迎客」이 그것으로 엄밀한 意味에서 事物만의 景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景觀의 일부가 되어 이루어지는 景觀體驗이 보다 인상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면 거기에는 일정한 활동의 순서와 형식이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공간의 이용은 매우 반복

적이기 때문에 시문에 나타난 일상적인 활동 내용을 도식화하여 본다면 공간의 意味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意味要素를 그림 4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



〈그림 4〉 意味要素의 分布圖

「石逕攀危」에서 進入한 후, 물·나무·약작이라는 形體要素가 思惟의 대상이 되어 「脩階散步」에 이르는 愛陽壇 부근의 지역에서는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48詠詩와 얽혀 선비의 詩吟 空間이 되고, 「榻巖精坐」, 「玉湫橫琴」, 「湘流傳盃」, 「床岩對棋」, 「槽潭放浴」에서는 神仙의 道樂인 음악과 술을 매개로 생활과 자연의 일치가 계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廣石臥月」, 「倚睡槐石」, 「梅臺激月」에서는 仙景의 일부분이 되어 선비의 思索 空間이 되고 있다.

즉, 進入, 詩吟, 遊戲, 思索의 4개 활동으로 空間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風土要素를 통해 朝暮四時, 四季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景觀을 표현하여, 그 詩를 읽는 瀟灑園의 방문객들에게 景觀을 보는 詩의인 眼目을 제공하여 凡人들이 지나쳐 버리기 쉬운 특정 시기의 특별한 景觀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風土要素가 중요한 景觀 對象으로 體驗의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3, 表4 참조〉

결과적으로 당시 瀟灑園의 이용자들의 平凡한 對象을 季節, 時刻, 氣候 및 一日의 時間變化를 통해 言語가 내포한 多樣性의 意味를 最大化하면

서 對象의 最高狀態를 발견하고자 하였던 風流性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즉, 瀟灑園의 景觀이란 것은 景觀의 형태적인 요소 자체나 그 조합뿐만이 아니라 景觀중의 다양한 움직임, 예를 들자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흐르는 물, 새의 울음소리, 인간의 행위로 인해 증폭되는 이미지·감정 현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3〉 時刻에 관한 語彙 調査

시간	具體的 表現
새벽	曉霧
오후	晝眼 冬午 午橋
저녁	黃昏 簿暮 日夕 雲暗
밤중	深夜 寒夜 昨夜

〈表 4〉 季節에 관한 語彙 調査

季節	具體的 表現
春	春入 四季 桃 梅(2)
夏	夏陰 放浴 炎熱 炎涼 南風 納涼 蓮
秋	秋來 丹楓 納涼 歲晚 涼秋 菊
冬	寒夜 鋪雪 雪霜 冬午 雪幹 映水 帶雪 杷

3. 瀟灑園의 空間構成에 의한 景觀體驗

瀟灑園의 공간적 구성을 경관의 측면에서 보아, 본 연구에서는 詩文에 나타나는 景觀要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圖式化해 봄으로써 당시 瀟灑園의 空間에서 利用者가 空間을 인식하는 경로와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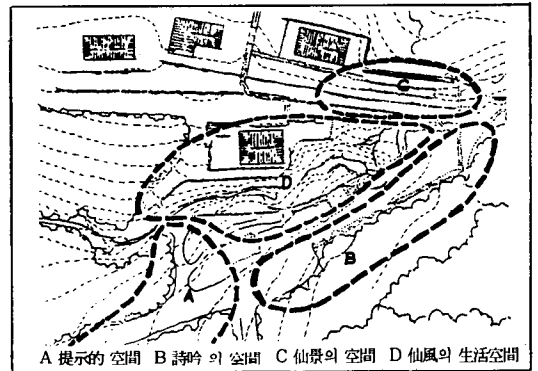
竹林 사이로 난 좁고 긴 길(夾路脩篁)을 따라 들어오면 오솔길이 세갈래로 펼쳐져(一逕連三益) 시야가 개방되고 透竹危橋에 이르러서는 대숲을 뚫고(架壑穿脩竹) 맑고 그윽한(得比更清幽) 장소로의 극적인 변화가 연출되는데 이는 계류가俗과 仙의 공간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그 자체의 신성함과 다리를 매개로 상호관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돌길을 위태로이 오르면(石筍攀危) 긴 담장으로 둘러진 지역에 다다른데 金麟厚가 지은 瀟

灑園48詠詩를 내용으로 하는 嵌版이 부착되어 있어(長垣題詠) 시구를 감상하기 위한 懸板의 역할 및 사색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색적 분위기가 脩階散步로 이어지면서 이 공간에서는 미음완보하면서(逍遙階上行) 시음이 이루어졌고(吟成閒簡意) 垣竅透流에서는 물을 보고(空見透牆流) 산보하면서(行吟思轉幽) 詩吟을 한다.

五曲流 西岸에 直線四段으로 累石築臺하여 왼쪽 二段에 造營한 梅臺는 매화, 난등의 화훼, 노출된 麓巖의 감상(負山麓巖), 느티나무 아래의 휴식(倚睡槐石)의 행위를 하던 공간으로 天, 月을 향하면서(梅臺激月) 臺閣勝瀛洲라 하여 신선과 같이 자연과의 合一을 바라던 공간으로 청풍명월의 경지가 완결된 地域이다.

또한, 계류를 중심으로 하여 「楊巖精坐」, 「玉湫橫琴」, 「湘流傳盃」, 「床岩對棋」, 「槽潭放浴」과 같이 음악과 술을 매개로 하는 仙風의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渾成瀟灑亭으로 瀟灑園 景觀의 절정을 이루는 지역이 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詩에서 나타나는 場所感으로 瀟灑園의 園域을 살펴보면 瀟灑園은 그림 5와 같이 4개의 특징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림 5〉 瀟灑園의 空間構成

進入段階의 空間으로 視野가 밝아지면서 全景이 점차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어지는 提示의 空間과 瀟灑園48詠詩가 걸려 있는 담을 필두로 하여 微吟緩步하면서 詩吟을 行하는 空間, 梅臺에서 仰景을 借景하면서 청풍명월의 경지가 완결되는 仙景의 空間, 그리고 仙風의 生活이 自然과의 合

一을 이루면서 瀟灑園 景觀의 절정을 이루는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각각 提示의 空間, 詩吟의 空間, 仙風의 生活空間, 仙景의 空間이라 부를 수 있겠다.

이들 공간은 각각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視界의 연속성을 통해 실제의 모습에 담긴 그 의미가 가중되면서, 각각의 공간을 따라 庭園 利用者의 知覺經驗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계류지역의 생활공간에서 그 絶頂을 이룬다.

IV. 結 論

本 研究는 瀟灑園의 景觀 自體가 무엇인가 하는 科學的인 立場보다는 當時 利用者들이 瀟灑園의 景觀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작하였는가라는 文化的인 입장을 택하여 當時 庭園 利用者들의 景觀에 관한 心象과 思考의 特性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瀟灑園48詠詩를 分析하여 瀟灑園의 景觀特性을 糾明하였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

이렇듯 瀟灑園의 景觀特性을 밝히기 위해 瀟灑園圖와 瀟灑園48詠詩를 각각 그 名稱과 景觀要素로 分析·考察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名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인간의 體驗에 따른 명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瀟灑園의 정원생활에 있어 感覺과 體驗이 중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表面的으로는 그것이 位置나 感覺·體驗에 의한 것들 중에도 象徴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名稱에서 體驗的 意味와 象徴的 意味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瀟灑園이 보다 뚜렷하게 意味를 理解하고 體驗을 할 수 있는 場所로 意圖되었던 것을 意味한다.

2. 瀟灑園에서는 溪流空間을 中心으로 自然과 人間이 서로 접하면서 經驗하게 되는 景觀의 體驗이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感覺과 體驗에 따라 命名되어진 명칭들 대부분이 계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둘째, 形體要素中 溪流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庭園 生活의 體驗에 의한 名稱이 오감에 의한 體驗을 示唆하는 名稱들보다 溪流와 近接하여 나타났다.

3. 瀟灑園의 景觀에서는 형태요소 자체나 그 조합 뿐만이 아니라 景觀중의 人間의 行爲와 風土要素로 인해 經驗하게 되는 非日常的인 體驗을 중요시하였고, 詩吟의 對象으로 認識되어진 「形體要素」는 瀟灑園의 文化要素로 간주되어 景觀의 意味가 전달되도록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作庭者가 의도한 景觀의 意味를 庭園 利用者들에게 전달하는 媒介體가 되었다.

4. 瀟灑園48詠詩에서 나타나는 場所感으로 瀟灑園의 園域을 살펴보면 瀟灑園은 4개의 특징 있는 空間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를 각각 提示의 空間, 詩吟의 空間, 仙景의 空間, 仙風의 生活空間이라 부를 수 있겠다.

5. 瀟灑園의 4개 空間은 각각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 트여진 視界의 연속성을 통해 진입 부분에서 詩吟의 空間, 仙景의 空間, 仙風의 生活空間을 통해 실제의 모습에 담긴 그 의미가 점점 가중되면서, 庭園 利用者의 知覺經驗은 점차적으로 증폭되어 絶頂을 맛보게 된다.

參 考 文 獻

1. 한계수(1985) "別墅瀟灑園에 표상된 자연형상의 건축미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9(129):16-22
2. 문화재관리국(1983) 「담양瀟灑園 보존정비계획 및 설계」 77p
3. 유병림, 황기원, 박종화(1989) 「조선조정원의 원형」,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282p
4. 김재호, 中村良夫(1989) "景觀體驗における詩吟行爲の役割に関する考察", 「造園雜誌」 52(5):205-210
5. 김재호(1988) "埋立地上の古庭園に見る景觀デザインについて", 「造園雜誌」 51(5):251-256
6. 度邊勝彦, 內藤 昌(1985) "名所の形體要素", 「日本都市計劃學會學術研究論文集」 Vol.20 pp.13-18
7. 정동오(1986) 「한국의 정원」, 민음사 pp.211-227
8. _____(1988) 「全南의 造景文化」, 전라남도 향토문화총서 第36집, 전라남도 pp. 70-89

9. 강희안著. 이병훈譯. (1974) 「양화소록」, 을유문화사.
10. 배상선(1990)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고려대 식량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3p.
11. 정동오(1973) “梁山甫의 瀟灑園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No.2 pp.27-33
12. _____ (1992) 「瀟灑園四十八詠에 대한 조경사적 측면에서의 연구」, 전남문화재 제5집.
13. 이종건(1984) 「瀟灑園四十八詠考」, 마산대학논문집」 6(1)
14. 김현(1992) 「소쇄원도와 시문분석을 통한 소쇄원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